

SKT,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로 WBA 7년 연속 수상

글로벌 어워드서 '최고 실내 와이파이'

SK텔레콤은 9월 30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WBA 인더스트리 어워드'에서 '최고 실내 와이파이 네트워크' 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WBA 인더스트리 어워드'는 AT&T, 도이치텔레콤, 퀄컴, 인텔, 시스코 등 전세계 주요 통신사업자 및 와이파이 장비 제조사로 구성된 '무선 브로드밴드 연합'에서 주관한다. 와이파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 시상식으로 꼽힌다.

주최 측은 SK텔레콤이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 '와이파이 6'를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상용화한 점과 고객이 실내에서 와이파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무선 메시' 기술을 개발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오영석 매니저(가운데)와 WBA 의장 데렉 피터슨(왼쪽), WBA CEO 티아고 로드리게스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와이파이 6'는 기존 대비 4배 빠른 최대 4.8기가비피에스(Gbps) 속도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삼성동 코엑스, 광주 유스퀘어 등 트래픽 밀집 지역에 와이파이

6를 설치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수상을 통해 세계 최초로 'WBA 인더스트리 어워드'를 7년 연속 수상하게 됐다. /김나인 기자 sikni@metroseoul.co.kr

현대차, 英 테이트미술관과 '카라워커展' 개막

현대자동차와 영국 테이트 미술관이 공동 개최하는 '현대 커미션: 카라 워커' 전시전이 2일(현지시간)부터 내년 4월 5일까지 영국 테이트 미술관에서 열린다.

'현대 커미션'은 현대차와 테이트 미술관이 현대미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체결한 11년 장기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전시 프로젝트로 혁신적인 예술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아브라함 크루즈비에가스, 2016년 필립 파레노, 2017년 수퍼플렉스, 2018년 타니아 브루게라 등에 이어 올해는 미국 출신의 예술가 카라 워커가 다섯번째 현대 커미션의 주인공이 됐다.

카라 워커가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는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에 관한 탐구를 바탕으로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가 핵심 주제다. 전시명은 'Fons Americanus'로, 영



'현대 커미션: 카라 워커' 전시 전경. /현대자동차

국 런던 버킹엄궁 앞의 빅토리아 기념비에서 영감을 받아 구상한 높이 약 13m에 달하는 대형 설치 작품이다. /양성운 기자 ysw@

AI 윤리 마련해야



기지 수첩

채윤정 (산업부)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기술 발전이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불행한 퇴보의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윤리가 수반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같은 불평등의 대표 사례로 AI가 남녀 차별, 인종 차별을 한다는 논란들은 어제오늘 새롭게 제기된 것이 아니다. 이미 3~5년 전부터 AI 기술이 여성이나 흑인 등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일들이 벌어져왔다.

아마존이 2014년 개발한 AI 채용 시스템은 여성 차별 문제를 일으켜 폐기됐다. 취업준비생이 렉서 평가 알고리즘에서 여자대 들어가면 감점요소로 분류했고, 그 결과, 경력 10년 이상 남성 지원자 서류만 추천했다.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를 학습해 추천자를 골라주는 데, 이전 10년간 남성들이 IT 산업에서 지배적이었던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했기 때문이다.

또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선보인 채팅봇 '테이'는 '네가 멕시코인데 당연하지' 같은 인종차별적 말을 해 16시간 만에 운영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최근에는 AI 비서 대부분이 여성으로 기본 설정된 것도 성적 편견이라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AI 비서가 자신이 '어여쁜 여비서'라고 답하거나, "여자여서 자동차에 관심이 없다"는 답변을 해 여성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조장해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차별, 불평등 등의 문제로 인해 AI 윤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돼 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뿐 아니라 AI 기술에서 앞서가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도 AI 윤리기준을 제정했다. 우리나라도 정부 부처가 앞장서 AI 윤리를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AI 기술에 있어 미국, 중국 등에 뒤졌지만 최근 정부가 AI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내세운 만큼 AI 윤리 마련에도 정부뿐 아니라 관련 단체, AI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 발 빠르고 합리적인 윤리지침들을 내놓아야 한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발판을 탄탄하게 다져야 할 때다. /echo@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2일 (음 9월 4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무리하지 말고 형편과 능력에 맞출 것. 48년생 고목에 꽃이 피어나니 좋은 일이 있다. 60년생 가겠다는 사람은 붙잡는 게 아니다. 72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아 온다. 84년생 처음 먹었던 마음 그대로 직진.
- 소** 37년생 흐르는 대로 내버려둬라. 49년생 마음만 바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61년생 자식에게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니 흡족. 73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는 형국. 85년생 소리대로 일이 잘 풀리니 기쁜 날.
- 호랑이** 38년생 기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 50년생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만족도가 낮다. 62년생 최선을 다하면 기회가 주어진다. 74년생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마라. 86년생 비대한 자이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다.
- 토끼** 39년생 발등을 찍는 건 고개 탓이 아니라 내 탓. 51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친구를 잘 챙기자. 63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건어간다. 75년생 주변을 확고히 해야 인연도 이어진다. 87년생 마음이 편치 않고 몸은 힘들다.
- 용** 40년생 비상금이 적절한 곳에 쓰인다. 52년생 선불리 증여를 결정하면 후회한다. 64년생 인생이 어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76년생 머지않아 새벽이 올 것이니 철저히 대비. 88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 뱀** 41년생 한니를 뿌리고 열 개를 얻는 날. 53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라. 65년생 진퇴양난의 경우라도 노력하면 길이 열린다. 77년생 물대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89년생 머리만 민고 있다가는 일을 그르친다.

- 말** 42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 54년생 아랫사람을 잘 보살피야 만사가 편하다. 66년생 입이 경솔하면 될 일도 틀어진다. 78년생 시작은 신용에서 비롯되니 작은 약속도 어기지 마라. 90년생 보라색과 숫자 2가 행운을 가져온다.
- 양** 43년생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은 관계를 악화시킨다. 55년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물이 들어온다. 67년생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상책. 79년생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바라지 마라. 91년생 선봉에 나서게 되니 주변의 질투가.
- 원숭이** 44년생 배우자가 내게는 가장 큰 조력자. 56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원하는 바를 무사히 달성. 68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때로는 아쉬운 법. 80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다. 92년생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걸칠 것이 없다.
- 닭** 45년생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 57년생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69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부디 자중자약하시길. 81년생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니 내 마음도 봄. 93년생 조금하게 굴지 말고 느긋하게.
- 개** 46년생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오니 불청객이다. 58년생 타인의 불행을 방관하지 마라. 70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면 마음만 다친다. 82년생 망설임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94년생 분위기를 바꿔 보는 것이 좋겠다.
- 돼지** 47년생 일시적 감정이 상대의 오해를 산다. 59년생 현상유지만으로도 벅찬 하루. 71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지 실망은 금물. 83년생 익숙한 일도 가볍게 보지 마라. 95년생 하늘이 푸르니 마음이 상쾌하고 나아갈 길도 보인다.



김상희의四季 좋은 인간관계의 열쇠

늘 하는 얘기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한다. 그런 까닭에 친화력과 사교성이 좋은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때 한결 유리하다. 타고난 성격 덕분에 인간관계에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반대로 여럿이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기를 즐기고 고집불통 성격을 타고난 사람이 있다. 이런 성정은 사주에 오행(五行)의 금(金)이 많은 경우에서 생긴다. 금이 태과하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건 물론이고 자기는 맞고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쉽게 분노하고 바로 대응을 한다. 그런 까닭에 직장생활이나 친구 사이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남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건 상대방을 존중해주면 인간관계가 심하게 악화하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말하는 방법을 직설화법에서 간접화법으로 바꾸는 것이다. 직설적으로 할 말을 내쏘기보다 예들러 우회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감정을 상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방법만 잘 지켜도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사주에 금이 많은 사람은 토(土)가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토생금(土生金)으로 서로 상생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화가 많은 사람이 있다면 멀리해야 한다. 상극의 오행으로 서로에게 해가 된다. 남들과 어울리기 힘든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면 갈등을 막는 열쇠 한두 개쯤은 마련해야 한다. 그 열쇠가 남의 말을 존중하고 우회적 화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 속에서 그 효과는 무척이나 대단하다. 필자의 권유로 인간관계라는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적지 않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x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4			
	1	6		2				
	4		2		3	1		
1								
4	2	5	3		7	8	6	
8			6				3	
	2		4					5
		8	7			1		
5				8				

	6		8				1	
1		3		4		7		5
2			7				9	
	8		5					
		6			4		7	
				9		2		8
	3			1				6
9		1			5		3	
	7					5		

스도쿠 정답

2	8	9	6	7	1	5		
6	1	7	2	5	4	8	9	
5	9	8	4	1	3	2	7	6
7	4	1	9	6	2	5	8	3
9	8	2	1	5	7	6	4	3
2	5	6	4	8	7	9	1	3
1	5	6	2	8	9	7	4	3
8	6	2	7	4	9	1	5	3
4	7	9	5	1	6	8	3	2

문제 제공= 보누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29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398호